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6월 12일(금)

(윤력 4월 27일)

Пятница

12 июня 2026 г.

№ 23 (1219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단신

러시아의 날 맞아 사할린에서 다채로운 행사 개최

6월 12일 러시아의 날을 맞아 사할린 주에서 산행, 해변 축구, '선행 축제' 자선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가가린공원에서 열린다. 6월 11일에는 가족 단합을 위한 로시 스카야산 가족등반 등산대회를 시작으로 12일에는 아니와 지역 타라나이 마을 '파티스 공원' 해변에서 아동 단체전 해변축구 대회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개최된다.

같은 날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공 원에서는 '선행 축제' 자선행사가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러시아인, 사할린한인, 타 타르인, 부랴트인, 아르메니아인 등 지역 내 여러 민족 공동체가 참여하는 문화마 당과 박람회가 진행되며 전체 수익금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아울러 주 전역에서 청소년들이 조국 과 고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만 14세 청소년들에게 첫 여권 수여 행사가 열린다. 발레리 리 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유즈노사할린스 크 주요 행사에서 직접 여권을 전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여 식을 진행한다.

제5회 사할린 역사기록물 축제 시작

2026년 러시아 '국민단결의 해'를 맞 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5회 사할린 역사기록물 축제가 <사할린의 많은 면모: 다양성 속의 통합>을 주제로 열렸다. 주최 측은 역사기록물 영상을 통해 사할린 주 민들에게 지금도 사할린에 살고있는 다양 한 민족의 전통과 유명한 문화활동을 소 개한다. 다큐영상 중 사하공화국, 타타르 스탄, 알타이의 역사기록물도 상영하고, 사할린을 발전시킨 사할린한인과 북방 소 수민족원주민에 대한 영상도 준비했다.

6월 10일에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 사박물관에서 60년대 - 80년대까지 사할 린의 유명 인사들에 관한 영상기록물 상 영과 '루스키 짜렘'합창단 공연으로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사할린 경찰, 이민법 위반 외국인 116명 적발

사할린 경찰이 5일 동안에 100명이 넘 는 이민법 위반의 외국인들을 검거했다. 6 월 초부터 사할린 지역에서는 '2026-불법 체류자' 합동단속작전이 진행 중이며, 단 속에 이민청, 범죄수사과, 국가교통감독국 을 비롯한 6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작전 개 시 후 5일 만에 총 116건의 이민법 위반 행 위가 적발됐다. 그중 체류 관련 규정위반 이 가장 많아 50건이 넘었고, 불법취업 및 고용주들의 불법고용도 적발됐다. 앞으로 도 이민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감시 는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펼쳐진 행사에서.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6월 12일을 우리는 러시아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날은 우리 국가 천년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진정 위대한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국민의 희생적인 노력과 수세대에 걸친 군사적 용맹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고, 그 사랑은 향토를 위해 일하고, 향토를 지키기 위해 싸우며, 과학적인 발견을 하고, 예술적 작품을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적 분야를 발전시키며, 사할린 주민들이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장병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고, 향토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평화로운 수고에 감사드리고, 조국의 이익을 위해 시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며, 러시아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사할린주, 사회복지 분야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사할린주의 예산수입이 59억 루블리 증가했다. 이 증가한 예산은 먼저 사회적 의무에 대한 추가자금과 지방자치체 재정 확대에 사용할 예정으로 사할린주 두마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해당 예산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할린 지역 예산수입의 증가로 총예산 수입은 2,010억루블리에 달해 지출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의 적자 규모는 변동없이 책정된 예산규정의 표준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지출항목에 추가재정을 투입했는데 이는 주민지원, 보건, 교통 접근성 향상 부문이다. 예산은 사회복지 대상 지원을 유지하고, 은퇴한 참전용사 또는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과 자녀를 둔 가정지원 등 주민에 대한 의무는 차질없이 이행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사할린주 재무부 올가 로파티나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통과된 예산수정안은 지역 예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보장 지원 및 지역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초

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들 예산에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도시와 구역들의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쓰이는데 이는 18개 지자체의 주요 도로보수 및 유지, 주택가 및 어린이 놀이터 정비, 장애아동을 위한1일 2식 급식 제공, 주택공사사업 지원 등에 지급된다. 이로써 지자체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0억루블리가 배정되어 이 자금은 노동베테랑 및 군사활동의 참전용사들을 비롯해 장애인, 혈액 공급자, 무직 연금수급자, 다자녀가정, 특수군사작전 참전자와 그들의 가정에 사용되고, 모성자금 부문과 담보대출 보상금으로 지출하게 된다.

보건 및 의료 분야에도 지출이 확대되어 복지 대상자들을 위한 의약품 구매와 의료기관 보수공사에 추가로 자금이 지급되며, 티몹스코예 지역 야스노예 마을에 이동 산부인과 진료소 건립에도 추가자금이 편성됐다.

또한 자금 일부는 주택공사사업 및 여객운송 분야의 요금 인상 억제에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출장차 사할린 방문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가 6월 8일 ~ 9일까지 사할린주를 방문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심지의 로가트카강 제방, 호텔 및 주거 복합단지 '고르니 위즈두흐' 스키장 제반시설, 군용 드론 생산 공장과 사할린 국립대학 캠퍼스까지 두루 시찰하고 점검했다.

먼저 유즈노사할린스크 로가트카강 제방의 종합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도시로 나가는 공원'이라는 개념 속에 시민과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총 6단계로 진행 중인 이번 사업은 전국의 우수 도시환경조성 프로젝트 공모에서 두 차례 우승하고, 연방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남북 강변 산책로와 제방을 설치하고, 원형극장 건설되었고, 자전거 운행을 위한 다리 건설을 완료하여 남북 강변을 장애물 없는 통로로 연결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최초로 특수 콘크리트판을 사용하여 로가트카강 독을 보강했다고 강조하고, 야간 조명 설치로 사계절 내내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덕에 주변 상점들도 활기를 띠는 상승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2026년 봄부터는 다음 단계 공사를 위한 강바닥 정비공사가 시작됐으며 향후 강둑은 피츠쿨투르나야 거리를 지나 한인문화센터와 '로지나'문화회관을 거쳐 미라 대로와 가까운 공원 호수 하류지역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호텔 및 주거 복합단지 건설 현장을 찾아 시찰하고, 누구에게나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미라 대로에 위치한 호텔 및 주상복합단지 건설 투자액은 총 57억루블로 4성급 호텔과 호텔서비스가 제공되는 36개의 아파트로서 현재 공사는 60%가 완료되었으며 ,고르니 위즈두흐와 도보로 가까워 향후 관광의 매력을 상승시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호텔 맞은 편에는 선도 개발지역의 일환으로 91억루블리 투자 규모의 10층 건물 3개동으로 구성된 주거단지 '레겐다'가 건설 중이며 2026년에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10층-18층의 주거용 건물 5개 동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해당 주거단지는 주차장이 아파트 지하에 위치하며 단지 내 마당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공원이 조성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95개 기업이 선도개발지역 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극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22개 기획을 추진하여 착공한 가운데 총 2,348억루블리 투자금 중 515억 루블리가 사할린 지역 경제에 투자되어 3,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선도개발지역 건설의 참여 기업들은 처음 3년-5년간 토지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법인세 면제,사업시행 6년-10년 차까지 세율인하 등 세제 혜택과 기타 제반시설 건설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르니 위즈두흐' 스키 리조트를 방문한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투자자들과 면담을 가진 가운데 리조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두 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슬로프 길이를 100km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조트 측은 선도개발구역 혜택을 통해 2029년까지 슬로프를 90킬로미터를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불세비크산 기슭에 '힐탑'사가 5성급 호텔(310객실)을 건설 중이고, '감마' 회사가 건설하는 스키어 맞춤형 호텔(575객실)은 장애인 및 패럴림픽 선수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추어 2028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고르니 위즈두흐는 2026년까지 스키리조트 제반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크라스나야산 북쪽 사면에 제설시스템 현대화와 6km의 슬로프 추가 설비 및 난이도에 따른 신규 슬로프 5km 건설을 시작해 올 11월에 개장할 예정이다. 여름에는 크라스나야산 남쪽 케이블카 건설이 시작된다. 아울러 크라스나야산과 오스트리아산 사이 계곡에 공항에서 12km 거리에 위치한 사계절 복합 리조트 '아이나 계곡'을 조성하는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다음 트루트네브 부총리가 찾은 곳은 2026년 6월 초에 건설된 특수 군사작전 지역 지원을 위한 드론 생

산공장 점검이 이뤄졌다. 생산가동을 시작한 '웰레스' 브랜드의 드론 생산공장은 타격을 위 한 최전선 공급용 및 방공식별구역 정찰용의 무인기를 생산하여 올여름 8,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향후 조립 컨베이어가 가동되면 월 5,0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기업에는 17명의 특별군사작전 참전용사들이 고용되었으며, 생산 확대를 위해 5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사할린주는 해상작전을 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한 자폭형 해상 무인항공기(BEK)을 개발해 2대의 시제품이 전술시험을 위해 태평양함대에 배치돼 합동훈련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다. 한편 오는 7월 3일~4일 '푸시스트' 드론공항에서 아시아태평양 및 브릭스(BRICS) 국가 관계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무인기포럼 '사할린의 날개'를 개최하여 지역 내 70여 가지 드론 활용 시나리오를 선보인다. 사할린주는 에라-글로나스 기반 무인기 식별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데 이어,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아브로라' 항공과 '자라' 그룹과의 유·무인항공탐지 및 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이로써 무인항공기를 위한 최첨단 항법 및 통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사할린테크' 캠퍼스 학생 기숙사를 점검했다. 국가기획 '청년과 아동'의 일환으로 2025년 완공된 1,500석 규모의 해당 기숙사는 현재 학생과 교직원 이 입주해 생활 중이며 카페,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세탁실, 코워킹 공간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재능있는 청년인재들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잠재력 강화에 기여를 목표로 '사할린테크' 캠퍼스는 건설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국립대가 가스프롬의 거점 대학으로 지정되어 향후 해양 석유·가스개발 기술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해저 탄화수소 생산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으로 올해 입학 정원을 25% 늘렸다고 밝혔다.

한편 캠퍼스 조성의 최종 단계인 연구교육센터는 현재 50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되어 공사하는 가운데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7년 말까지 총면적 8,700m² 규모로 연구실, 기술단지,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온실, 지하 주차장 등을 갖추어 완공할 예정이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농산물 박람회, 농업인 70명 이상이 생산품 선보여

6월 6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농산업 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농민, 원예농업인, 개별 부업 영농인, 개별 텃밭 영농인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농산물 박람회장은 고르노리츠나야 거리 '러시아는 나의 역사' 멀티미디어 공원 옆에서 펼쳐졌다. 농산물 박람회에 70명 이상의 농산물 생산자들이 참가해 사할린에서 생산한 육류, 콜바사류(소시지류), 유제품, 제빵류, 제과류, 사할린 생산 업체들의 특산품들을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별히 묘목, 관목, 채소 모종과 꽃모종들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소비자시장 및 식자재청의 엘레나 다칠로와 청장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박람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흄스크, 토마리, 네웰스크, 코르사코브 지역들의 농장주, 자영 영농인, 원예농업인들도 자체 생산품들을 선보였다고 전했다.

박람회에 사할린주의 다양한 지자체 주민들이 찾아왔는데 돌린스크 지역 소콜 마을의 주민 예브게니야 웨켈리나는 지역 콜호즈의 농산물과 수공업품을 구매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전통적으로 지역 농산물 장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이는 지역 농산물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배 시기를 준비하게 한다.

Более 70 участников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ярмар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6 ию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которая собрала фермеров, садоводов, владельцев личных подсобных хозяйств и любителей дачного сезона. Торговые ряды развернули на улице Горнолыжной рядом с мультимедийным парком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Участниками ярмарки стали более 70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сетителям предложили широкий выбор местной продукции: мясо, колбасные изделия, молочные продукты, выпечку, кондитерские товары и другую продукцию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Отдельное место заняли саженцы деревьев и кустарников, а также рассада овощных и цветочных культур.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рынка Елена Дачилова,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представили не только производител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о и фермерские хозяйства, владельцы личных подворий и садоводы из Холмск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На ярмарку приехали жители раз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бласти.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Сокол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Евгения Вегелина специально посетила мероприятие, чтобы приобрести продукцию одного из местных совхозов и изделия ручной работы.

Подобные ярмарки традиционно пользую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озволяя поддерживать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садово-огородному сезону.

〈러시아의 물〉 행사 일환, 300명 이상의 주민들 이즈멘치위에 호숫가 청소

6월 6일 사할린에서 〈러시아의 물〉 전국 기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환경보호 행사가 진행됐다. 이 행사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실시되고 있는 〈환경보호적 변명〉국민기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할린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부와 공공폐기물처리 지역 감독국이 주최했다.

대규모 청소에 사할린 지역의 주민 30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은 3.5km의 해안가를 청소하여 500봉지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행사에 사할린 각 부처의 직원들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사회단체, 대기업, 교육기관, 자원봉사자연합회의 대표들과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했다. 그중 폐기물처리 지역 감독국의 전문가들과 코르사코브 행정부, 석유가스 및 광산회사의 대표들과, 철도청 직원, 학생들도 대거 참여했다.

사할린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부 장관 안드레이 사

마토브는 이번 행사가 환경보호의 날을 맞아 추진됐다고 전하며 "행사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참여한 것을 보니 무척 반갑다. 어린시절부터 바로 이런 행사에 참여를 통해 자연에 대한 사랑과 향토에 대한 책임감이 형성된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물〉 행사는 국내 대규모 환경보호 자원봉사활동 중 하나로 사할린주는 매해 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강변, 호수, 해변에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환경정화 마라톤 행사는 4월 17일 유즈노사할린스크 로가트카 강변 청소로 시작되어 올해 말까지 사할린 지역에서 해안 정화활동에 200개의 행사가 계획돼 있고, 이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Более 300 сахалинцев убрались на побережье озера Изменчивого в рамках акции «Вода России»

Масштабная экологическая акция прошла 6 июня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екта «Вода России». Инициатива входит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Эколог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ют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ый оператор по обращению с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В уборк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300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олонтеры очистили 3,5 километра прибрежной территории и собрали свыше 500 мешков мусора.

К акци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сотрудники област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руп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олонтер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 специалис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ператора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округа, компаний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го сектор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и, студенты и школьники.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я Саматова, нынешнюю акцию посвятили Дню эколога.

(8면에 계속)

네벨스크, "바다사자의 날" 축제 개최

네벨스크는 방파제에 큰 바다사자(сивуч)가 모여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바다사자는 바로 네벨스크 도시의 상징이다. 이곳에서 매년 ‘바다사자의 날’ 행사가 열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방문객들과 사할린을 찾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올해 축제는 5월 30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6월 6일로 연기되었다. 6일 아침에도 네벨스크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이날도 축제가 취소될 위험에 처했다. 오후 좀 다행히 바람은 잦아들었고, 축제는 예정보다 늦은 오전 10시가 아닌 오후 2시에 네벨스크의 시부치 만(베레고와야 거리 46)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축제 진행은 사할린한인연합회의 청년그룹담당자인 김 세르게이가 맡았다.

사할린 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의 회원 20여 명이 이날 축제 현장을 찾은 가운데 연합회 팀은 축제조직위원회의 부탁으로 마련된 가판대에서 사할린 한식을 판매하기로 했다. 그래서 전날 고비나물, 우영볶음, 김치볶음, 뽕새, 오이무침, 당근무침, 다시마 등 다양한 반찬과 요리를 준비했고, 현장에서는 해물과전을 부치고, 조그만 커틀릿과 도너츠를 튀겼다. 요즘 주내 여러 대중행사에서 사할린 한식 소개는 필수메뉴로 자리를 잡았다. 이번에도 반찬과 요리가 인기가 많았다.

이날 방문객들을 위해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바다사자 관람 관광, 스포츠 시범, 활동교실, 각종 놀이와 포토존, 길거리음식, 기념품 판매 부스 등이 설치되었다. 과거에 유행했던 자동차 전시도 있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씨름 시범대회를 이곳에서 열기로 했으나, 사할린주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가 이미 네벨스크로 가는 중에 바람이 너무 세다는 연락



을 받고, 바람이 불지 않은 로파티노 산 근처에서 오전 11시에 대회를 열었다. 씨름대회에는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네벨스크 선수 40여 명이 참여했다.

축제 행사장에서 선수들의 씨름시범대회를 열고 대회 시상식이 이어졌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참치쇼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생선을 먹는다> '스비바르'의 셰프 쿠도 모토기가 참치 손질법에 따른 활동교실을 진행해 참가자들은 이 활동을 통해 스시 세트를 맛볼 수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온 방문객들과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 중 보트를 타고 바다사자를 관람하는 투어는 인기가 많았다.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펼쳐져 특히 저녁에는 록그룹들의 신나는 무대가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취재: 배순신 기자)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용 순

김 용 순

관리번호	952697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 용 순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21-12-04	
본적	미상			

공훈록

조선혁명군은 1929년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 정당인 조선혁명당(朝鮮革命 1921년 3월 이후 서간도 군비단(軍備團)은 본거지인 길림성(吉林省) 장백현(長白縣)을 떠나 이만에 집결했다. 이후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을 피해 각지로 분산한 군인들 가운데 연해주에 모인 상해파 인사들과 연합해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1921년 9월 이만에서 고려의용군사회의

를 조직하고 산하에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고려의용군사회의는 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들을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파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었다. 1921년 12월 4일 대한의용군 제2중대는 이만을 방어하기 위해 이만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제2중대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백군과 전투를 벌이다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때 제2중대 중대원 김용순도 이 전투에서 전사 순국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10월혁명 10주년과 소베트고려민족(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1927) 70~75면
-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윤상원,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67~676면.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수신: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님 귀하
발신: 사단법인 "사할린한인연합회"
제목: 영주귀국 대상자 수 증가에 관하여

호 소 문

우리 사할린동포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채택된 『사할린동포지원특별법』에 따라 수만 명의 사할린한인들은 역사적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외동포청의 정보에 따르면 2026년 영주권 취득자로 선정된 인원은 단 234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많은 귀국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된 인원수로는 귀국 과정이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 결과 사할린 한국인 노령층 상당수가 역사적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들이 자국민을 대규모로 본국으로 송환할 기회를 찾아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받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경제적으로 파탄 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46부터 1949년까지 292,500 명, 1년 평균 9만7천5백 명을 일본으로 송환하였습니다.

또한, 1990년대에 독일은 최단 시간 내에 약 145만 명의 사람들을 소련, 러시아에서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현대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이며, 세계 선진국 순위에서 대략 9위 또는 10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지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으로 고통받았던 사할린 한국인들과 그들의 자녀, 손자녀들의 귀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의 안녕은 국민과 동포에 대한 태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현재의 인구 구조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사할린 거주 한국인과 그 가족들의 본국 송환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역사적 정의 실현,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측면들이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영주귀국을 원하는 사할린한인들을 빠른 시일내에 2~3년내에 아들,딸 손주와 함께 송환해야 합니다.
- 사할린 한인들이 모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산가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영주 귀국한 한인동포 및 사할린 잔류 한인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우선적이고 간소화된 절차로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역사적 고향으로 돌아온 사할린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어, 한국어 쓰기, 한국문화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내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사할린 한국인들에게 학비 지원 및 장학금 형태의 국가 지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은 이미 강제 동원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 등 인도적,도덕적 차원에서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할린에 거주하는 많은 가족과 피해자들이 한국 시민권이 없어 이러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역사적 고향으로 돌아온 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6.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망한 사할린한인 1세의 유가족과 그 후손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사할린 한인 강제 동원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법적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역사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사할린에 거주하고있는 2만 3천명 이상의 사할린동포와 약 4~5천명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가 대한민국과 사할린을 잇는 항공 직항노선이 없어 이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항공통신망 구축은 많은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 가족모임, 문화교류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울-유즈노사할린스크를 연결하는 항공 직항노선 재개는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정상화하고 구축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복잡성을 이해하지만, 항공 직항노선 재개를 위한 문제 해결에 대통령님의 지지와 지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사할린한인연합회"

회장 고영순

김포시 사할린동포회

회장 박노영

2026.06.02.

(새고려신문사 편집부에서 일부 교정)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у
От имени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ОБРАЩЕНИЕ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М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скренне желаем дальнейшего процветания и успешн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есятки тысяч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вернуться на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Вместе с тем,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личество лиц, отобранных для репатри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2026 году, составляет всего 234 человека.

Учитывая значительное число желающих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ой, при существующих темпах процесс репатриации может растянуться на многие десятилет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искует не дожидаться возможности вернуть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История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даже в сложнейших условиях государства находил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масштаб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сво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Япония, испытывая атомные бомбовые атаки на Хиросиму и Нагасак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казалась в экономически разор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Тем не менее, в период с 1946 по 1949 год Япония репатриировала из Сахалина 292 500 человек, в среднем 97 500 человек в год.

В свою очередь, Германия в 1990-е годы обеспечила возвращение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коло 1,45 миллиона этнических немцев из стран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егодн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ведущих экономик мира и обладает значитель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поддержкой сво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В связи с этим, мы обращаемся с просьбой удел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опросу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х детей и внуков, являющихся потомками лиц, пострадавших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ак известно, благополучие государства во многом определяется его отношением к своим гражданам 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Мы убеждены, что в условиях современных 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вызовов, включая снижение рождаемости, старение населения и нехватку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могла бы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ускорения процесса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При этом вопросы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компенсации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а также связанные с этим правовы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продолжают оставаться актуальными.

В связи с изложенным прос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ссмотреть следующие предложения:

1.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желающие вернуть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репатриации в течение ближайших двух-трёх лет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детьми и внуками.

2.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следу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свободно-

го перемещени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ахалином.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злучения семей просим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приоритетном и упрощённом порядке, как репатриированным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так и тем, кто продолжает проживать на Сахалине.

3.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ернувших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необходимо организовать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исьменности и культуре, способствующие успешной интеграции в общество.

4. Просим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в виде оплаты обучения и стипенд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тупивших в высш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5.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же реализует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 гуманитарным и моральным соображениям, включая выплату компенсаций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 их семьям. Однако многие семьи и пострадавшие,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Сахалине, 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казанными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вязи с этим просим преду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ения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выплат после оформ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и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6. Прос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й позиции в вопросах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семьям погибших и их потомкам, а также продолжа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и правовые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дновременно считаем важным,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вним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 данн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облеме и содействовать её справедливому разрешению.

7. Более 23 000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а также около 4-5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же репатриированных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талкиваются со значительн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вследствие отсутствия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ахалином.

Мы убеждены, что открытие прямого воздушного сообщения существенно улучшит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граждан,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семейных связей,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и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еулом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стало бы важным шагом на пути укрепления гуманитарных и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двух стран.

Осознавая сложность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просим Вас,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его решении.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внимание и надемся на поддержку.

С уважением,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 Ен Сун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импо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к Но Ени
2026.06.02.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очерк Николая Долгополова о легендарном разведчике,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и Ивановиче Киме.

Жизнь в триумфах и трагедиях.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1932-1998)

Николай ДОЛГОПОЛОВ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 18, 19, 20, 21, 22)

Невозможность быть вместе с годами оборачивалась для этой пары чисто семейной, однако, драмой, в последнем акте даже трагедией. Два любящих человека были обречены на долгую разлуку. Брак угасал, распадался.

Хорошо в нем вовремя родился сынишка, призванный радовать родителей. Рождение сына за три месяца до отбытия отца «в никуда» было вполне реально и легально. Мальчика назвали Юрием в честь отца супруги. В семье его звали Юрчиком.

Командировка нелегала затянулась на 23 года и завершилась в 1989 году. И все это время нелегал был незаменим. Его легенда, сложная и неоднозначная, выдержала длительную проверку, благодаря хладнокровному мужеству ее обладателя.

Конечно, это не означает, что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безвылазно находился в одной стране. Раз, иногда и два раза в год придумывалась легенда, позволявшая приезжать на месяц, очень редко на более продолжительный срок на родину. Конечно, нелегально. Между беседами с людьми, отвечавшими за его работу, докладами руководству он успевал испытать и радости семейной жизни. И особенно — отцовства.

Но за коротким отпуском следовал неминуемый отъезд на срок абсолютно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й. Супружеских уз это не укрепляло.

Нелегал удивительно быстро сроднился со страной постоя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Вот уж кто никогда не был для нее чужаком. Освоился. Закрепился. Приступил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ч в стране чувствительной (то есть со слож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ой), порой непредсказуемой, очень для нас важной. Жизнь была одновременно и захватывающей, и однообразной. Неизбежные проверочные маршруты. Встречи. Тайниковые операции. Сеансы радиосвязи.

Удавались вербовки. Он получил постоянный доступ к ценнейше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Карьера прикрытия резко пошла вверх. О том, каких высот он там добился,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удивительнейший факт. Был Ким на такой высоте, что однажды столкнулся буквально лицом к лицу со своим бывшим начальником Александром Шелепиным и его переводчиком и — надо же — сокурсником по университету. Переводчик все быстро понял. А экс-председателю КГБ, возглавлявшему прибывшую в страну делегацию, тут бы не подать виду, пройти мимо, а он бросился обниматься с хорошо знакомым подчиненным. Ряд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ой власт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понятно, и люди из секретных служб... Вот он, типичный провал. Но неимоверным образом обошлось. Ким ухитрился улизнуть от медвежьих, во всех смыслах слова, объятий.

Тем более поразительно: ведь режим в стране — жесточайший, пронизанный подозрительностью. Контрразведка бесцеремонная, приучившая поголовно все население к доносительству. У нелегала ни минуты на расслабление, постоянная концентрация.

Все это сказывалось на здоровье. Болел тяжело, но на ходу. Оставался фактически единственным вжившимся в местные условия нелегалом высочайшего класса. Из Центра предлагали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ернуться, и Ким сам должен был решать: уезжать домой или оставаться. Но кто вместо него? Он сделал рискованный выбор и работы не прерывал. Ким был незаменим и понимал это, каждый раз извещая Москву, что продолжит. И даже когда сообщили, что он может попасть под подозрение из-за предательства Олега Гордиевского, хорошо его

знавшего, нелегал остался.

Приведу строки из хранящегося в Центре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го личного дела Ким Ен Чира, сменившего в 1978 году имя на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а: «Будучи в стране со сложной агентурно-оперативной обстановкой, нелегал с чувством высок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относился к выполнению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успешно справился с ними, проявил при этом высокие мор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качества, показал себя политически зрелым и оперативно грамотным разведчиком. В решении оперативно-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вопросов действовал смело,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о, с проявлением инициативы и творчества, добился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онкрет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Им добыта и направлена в Центр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которая получила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Сухо, официально, зато понятно. Разве не триумф?

Дома подрастал сын. Высокий симпатичный парень хорошо учился. Занимался стрельбой, любил плавать. Окончил восемь классов.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не просто любил сына. Всерьез видел в нем продолжателя своего дела. Вырываясь в Москву, встречался с ним. Признавался, что «на земле больше нет никого, кроме этого единственного, живущего вдалеке от тебя сына...». Мальчику объясняли постоянное отсутствие отца: он служит глубоко засекреченным испытателем космической техники. И тот верил.

Мальчишка был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 подвижным, рос большим выдумщиком. Когда отец вырывался «на переключных» в отпуск, проводили они почти все время вместе. Однажды почувствовав, что отпуск папы близок к концу и он отправляется на свои космические испытания, Юрчик подготовил сюрприз. Незаметно засунул ему в карманы советские деньги. Вдруг понадобятся. К счастью, рядом с нелегалами работают очень внимательные люди. И при кропотливом осмотре одежды при выводе они были поражены: как такое возможно? Как возможно, стало понятно после короткого внутрисемейн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Маленький мальчик хотел, чтобы папа не был голодным.

«Сын долгое время даже не подозревал, кем я работаю. Будучи в отпуске, я попросил у наш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разрешени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ему ребенку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награды, в том числе и Звезду Героя. Санкция была получена и вот, на конспиративной квартире (по словам Юрия Ивановича Дроздова, это было где-то в Германии, в ГДР. Но так ли? — Н. Д.), я неожиданно вышел к сыну при полном параде, в пиджаке, тяжелом от орденов и медалей. Немая сцена... Хороший был мальчик. Скромный, трудолюбивый, послушный. Из него со временем могла бы выйти неплохая смена для меня. Жаль, что так рано ушел из жизни...»

С сыном произошло несчастье. Разные люди описывают ту трагедию по-разному. Сходятся в одном: утонул.

Юрий Иванович Дроздов рассказывал мне, что все случилось в пионерском лагере на Черном море. Как раз незадолго до трагедии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приезжал домой, встречался с мальчиком. Уехал успокоенным: с Юрчиком все в порядке. Нелегалу сразу сообщили о гибели мальчика. Чудом Ким сумел приехать домой. Попрощался с сыном. День просидел в полном одиночестве. И снова уехал. Так было надо.

Источник: Долгополов Н.М. Легендарные разведчики-4. М., 2024. С. 93-113. —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 сер. биогр.; вып. 2003).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 Чжэ Мён: Память о погибших – обязанность общества

Память о погибших при исполнении служебного долга – главная обязанность общества,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выполняться.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6 июня на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Дня памяти погибших за родину,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Сеуле. «Почитание духа патриотов и должное уважение их памяти – важная обязанность общества»,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Он напомнил о предстоящем принятии закона о расширении льгот для семей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заявив,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бросовестно выполняет своё обещание оказыва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супругам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Президент подтвердил свою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расширению сети госпиталей для ветеранов в отдалённых районах, включая провинцию Канвондо и остров Чечжудо.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помнил, что наказание тех, кто предал общество,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обязанностью.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едавно принятым зако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едёт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конфискует незаконно накопленные активы коллаборационистов колониальной эпохи,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овторение подобных случаев,- добавил он.

Президент РК отправился в зарубежную поездку

9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отправился в зарубежную поездку. Первым пунктом программы станет Бельгия, с которой в этом году РК отмечает 125-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ходе двухднев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в Брюссел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стретится с лидерами Бельгии и Евросоюз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изит в Италию продлится с 11 по 13 июня. В Риме пройдут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зидентом Италии Серджо Маттареллой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Джорджем Мелони.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писание ряда двусторонних документов. Кроме того, Ли Чжэ Мён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круглом стол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двух стран. В программе визита в Италию также посещение Флоренции, где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вопросы укрепл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14 июня Ли Чжэ Мён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мессе в Ватикане, а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встретится с Папой Львом XIV. С 15 по 17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К буде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саммите Большой семёрки,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во французском Эвиане. РК является гостем саммита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 Seoul Food 2026 участвуют 1.800 компаний из 49 стран

С 9 по 12 июня в Корей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выставочном центре KINTEX в городе Коя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оходит крупнейшая в стране выставка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Seoul Food 2026. Её цель - увеличить экспорт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й популяр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о всём мире. Нынешняя выставка – 44-я по счёту. В ней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1.800 пищевых компаний из 49 стран. В этом году главным гостем выставки являются США, для которых создан специальный павильон из 82 стендов, посвящённых американским продуктам питания. Seoul Food входит в число четырёх крупнейших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выставок в Азии наряду с аналогичными выставками в Шанхае, Бангкоке и Токио.

Сон Чжэ Сын – лауреат гран-при балетного конкурса в Финляндии

20-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ртист балета, студент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скусств Сон Чжэ Сын завоевал гран-при 10-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балетного конкурса в Хельсинки,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с 28 мая по 5 июня. Конкурс собрал 76 участников из 14 стран. Сон Чжэ Сын соревновался в категории молоды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Е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ца Кан Ю Чжон заняла третье место в той же категории, а ещё одн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балерина Ин Чжи Ён – третье место в категории юниоро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балетный конкурс в Хельсинки, основанный прима-балериной Лайне-Алми в 1984 году, проводится раз в четыре года.

Пятый альбом BTS - самый продаваемый в Японии

Пятый студийный альбом группы BTS под названием Arigang стал самым продаваемым альбомом в Японии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По данным Billboard Japan, с тиражом в 706.961 копию альбом BTS возглавил рейтинг и опередил альбомы японских исполнителей. Ещё нескольк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упп вошли в первую двадцатку рейтинга. Седьмой мини-альбом группы Enhypen под названием The Sin: Vanish на четвёртом месте. Мужская группа TXT заняла седьмое место со своим восьмым мини-альбомом 7th Year: A Moment of Stillness in the Thorns, а No Tragedy группы TWS — десятое. Мужская группа Treasure заняла 13-е место со своим третьим мини-альбомом Love Pulse.

RKI

Си Цзиньпин впервые за семь лет посетил с госвизитом Пхеньян

В понедельник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Си Цзиньпин прибыл в Пхеньян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изитом. Это первая поездка китайского лидер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за семь лет и первый зарубежный визит Си Цзиньпина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с лидером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оказались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расшир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координации позиций по региональной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вестк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рганизовала прием по высшем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протоколу. В аэропорту китайского лидера и его супругу лично встретили Ким Чен Ын и его жена Ли Соль Чжу. Улицы Пхеньяна были украше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флагами, портретами лидеров и лозунгами, прославляющими традиционную кита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дружбу.

Визит проходит на фоне 65-летия Договора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между КНР и КНДР, который до сих пор остается основой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По оценкам наблюдателей, нынешняя встреча имеет значение, выходящее далеко за рамки юбилей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хеньян существенно укрепил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при этом Китай продолжа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тесные связи как с КНДР, так и с РФ. Одновременно Пекин и Пхеньян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усиливающимся соперничеством с США и их партнерами в регионе.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в пхеньянском дворце Кым-сусан Ким Чен Ын назвал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с Китаем "важнейшим первоочередны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КНДР. "Мы и впредь будем рассматривать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ак важнейшее первоочередно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 заяви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Глава КНДР подтвердил неизм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принципа "одного Китая", заявив,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будет и далее твердо поддерживать меры Пекина по защите его ключев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Си Цзиньпин призвал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контакты между правящими партиями двух стран, расширить обмен опыт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а также усили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й и военной сферах.

Особый акцент был сделан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крепл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координации между Пеки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для защиты суверенит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интересов развития обеих стран, а также совместного поддержания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е. Си также назвал кита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дружбу, "скрепленную кровью", общим драгоценным достоянием народов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В стать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газете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Нодон синмун" китайский лидер заявил, что отношения двух стран находятся "на нов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рубеже" и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Он призвал Пекин и Пхеньян укреплять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координацию, поддерживать тесные контакты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и совместно защищ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ую систему, основанную на Уставе ООН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рав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Эксперты: КНДР, вероятно, показала неизвестный ранее новый ядерный центр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л недавно введенное в строй предприятие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ядер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потребовал ускорить наращивание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траны. Зарубеж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едположили, что Пхеньян показал новый центр по обогащению урана, о котором ранее не было известно.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бывал на объекте вместе с руководящими сотрудниками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нститута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не раскрывается.

Согласно ЦТАК, Ким Чен Ын ознакомился с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и процессами и высоко оценил внедрение новы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ыполнение предыдущего пятилетнего плана позволило более чем вдвое увелич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страны по выпуску оружейных ядерных материалов.

Теперь,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КНДР, перед отраслью стоят еще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е задачи. Ким заявил, что новый пятилетний пла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дальнейшее наращива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с учетом потребност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ядерных сил.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стоян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отенциальные угрозы и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е долгосрочные кризисы еще больше подчеркиваю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скоренного и непрерывного укрепления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как в качественном, так и в количественном отношении", - приводит слова лидера КНДР ЦТАК.

В тот же день в Пхеньяне прошло совеща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укрепления ядерных сил страны. Как сообщи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на нем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новые ориентиры развития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и приняты решения об ускоренном наращивании ядерных сил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актическими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потребностями государств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экспертов привлекл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ЦТАК фотографии. На снимках видны ряды центрифуг для обогащения урана, что позволило министерству оборо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делать вывод: речь, вероятно, идет о предприятии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высокообогащенного уран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читается, что подобные объекты действуют в Ёнбёне, Кансоне и Кусоне. В связи с этим в Сеуле не исключают,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впервые показали еще один завод, связанный с производством материалов дл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ожет быть уже четыре таких центра.

Нынешний визит стал уже третьим случаем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когда Пхеньян публичн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объекты свое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нее подобные сообщения публиковались в сентябре 2024 года и январе 2025 год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WSJ назвал КНДР самой удивительной истори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успеха в мире

Влиятельное американское издание The Wall Street Journal высоко оценило успехи КНДР в развитии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звав путь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чучхе - "самой удивительной истори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успеха" в мире.

"Ее экономика процветает так, как не было уже много лет", - отмечает издание, утверждая, что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в том числе благодаря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хеньяна с Москвой, Пекином, а также способности выживать в условиях жесточайш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которые уже долгие годы действуют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Журналисты американской газеты указывают на большие перемены,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особенно в ее столице - Пхеньяне. Вошли в обиход и стали широко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иложения для заказа такси, в ресторанах подают пищу из дровяной печи и куриные крылышки, посетители могут платить через мобильную систему QR-кодов, по улицам носятся китайские электромобили, появились зоомагазины, интернет-кафе с играми и автосалоны, продающие в том числе самые дорогие западные модели.

Сравнивая с ведущими мегаполисами США, The Wall Street Journal отмечает, что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Пхеньяне построили десять тысяч новых домов - больше, чем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или Чикаго. КНДР смогла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ть крупные проекты развития, которые вынуждена была приостановить ранее из-за пандемии и иных трудностей. В частности, открыла двери крупнейшая больница Пхеньяна, сда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тепличный комплекс, который по площади превышает Центральный парк Нью-Йорка,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начал работу и принял туристов, включая российских, большой курорт Вонсан-Кальма.

Кроме того, КНДР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 и регионы. В стране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20х10", котор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жегодно в течение 10 лет в 20 регионах как минимум по одному крупному новому объекту - фабрике, заводу,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му комплексу, объекту культуры или отдыха.

Очевидны успехи и в сфере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где КНДР смогла преодолеть последствия пандемии и нейтрализовала эффект санкций. Так, недавно месячный товарооборот с Китаем достиг максимума за восемь лет, а многие известные китайские бренды активно работают в КНДР.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Юрий Трутнев проверил ход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бережно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и осмотр набережной реки Рогатк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де продолжается комплексно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городов направлено на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Не буду отдельно оценивать набережную реки Рогатки, а скажу о том, что меняется Сахалин и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умаю, что это вижу не только я, но и сами жители. Такие изменения важн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люди здесь комфортно жили, чтобы появлялись любимые места, — сказал Юрий Трутнев.

Набережная Рогатки стала новым любимым местом отдыха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Преображ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ачалось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разбили на шесть этапов, объединенных концепцией: «Парк выходит в город».

Первый — охватил южный берег. Здесь обустроили променады по улице Комсомольской, сделали берегоукрепление, высадили растения.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благоустроили северный берег —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пешеходный мост, построили амфитеатр и площадку с навесом для город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спуститься к воде. Главной задачей третьей очереди ста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елопешеходного моста. Он соединил южный и северный берега единым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ым маршрутом.

Первый этап реализовали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бюджетов, а второй и третий — с помощью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благодаря двукратной побед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 Преображение набережной — это современные решения для удобства людей. Мы впервые укрепили берега реки Рогатки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ьных бетонных плит. Этот опыт оказался удачным, и мы применили его в дру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Набережная теперь красиво подсвечивается, и можно менять освещение под разные события, создавая особую атмосферу. Благодар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здесь стало комфортнее отдыхать круглый год,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и оживился бизнес вокруг.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активно подключаются к развитию территории, а соседние объекты тоже начали обновляться, делая пространство еще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новл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а этом не заканчивается. Весной 2026 года началась подготовка русла реки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На следующих этапах набережную планируют продлить до улицы Физкультурной, а затем — мимо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и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 к проспекту Мира. Финальная очередь предполагает выход к участку Нижнего озера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ZALA» и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ZALA» и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будут расшир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На полях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соглашение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ZALA» Сергей Люстарнов.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Константин Сухоребрик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заочно.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ZALA» - ведущий отечественный разработчик и производитель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уникальных целевых нагрузок и моби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Сегодня в России применяется более 2000 беспило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ZALA для охр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раниц, проведения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и спасательных операций, мониторинга нефтегаз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бследования объектов повышенной опасности и мест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 Мы уделяем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нового вида транспорта и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ем с компанией «ZALA». Наше предприятие «Аврора-БАС» - дочерняя структура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 использует ее изделия, например, для мониторинга лесов, русел рек на случай затопов.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лощадь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в области сократилась в 40 раз. Подтопление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з-за разливов рек свелось практически к нулю. То е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положительно влияет на жизнь людей. Уверен, подписа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поможет нам добиться новых результатов, расширить сферу применения дронов. Например, более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у технику для отслеживания состояния нефте- и газопроводов на Сахалине, реализовать други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дадут серьез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и социальный эффект,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подписа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стороны намерены организовать совместный отбор и оценку новейших отраслев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назем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Цель - обеспечи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суверенитет в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отраслей.

— Сегодня время разрозненных фотоотчетов с квадрокоптера ушло в прошлое. Реальная эффективность - это когда

комплекс на базе самолетного БПЛА способен за один полет закрыть сотни километр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 заказчик видит не просто «красивую картинку», а объективную математику процесса и динамику изменений. Мы решаем проблему «слепых зон» и даем инструмент,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видеть ситуацию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и молниеносно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я на основе нейросетевого анализа, а не субъективных докладов с мест,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Люстарнов.

Кроме мониторинга лесов и русел рек, дро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еняются для контроля ледовой обстановки, поиска заблудившихся людей, выявления нарушений на особо охраняемых территориях.

— Мы не делим авиацию на пилотируемую и беспилотную. Это основное слагаемое успеха нашего беспилотн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Опы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ции, все наши компетенции и возможности, надежный партнер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в лице компании «ZALA» и поддержка региона позволяют нам быть лидерами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ия в стране, — 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Константин Сухоребрик.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т собственные наработки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на ежегодн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Он пройдет 3-4 июл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ервого в России дропорта «Пушистый». Основной темой форума станет практика применени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 как воздушных, так и водных.

Компания Ozon намерена создать крупный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на Сахалине

На полях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Ozon холдинг» Игорь Зимин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Компания намерена созд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крупный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а Ozon связывает более 750 тысяч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 67 миллионами активных покупателей. Благодаря созданию первого крупного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на Сахалине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могут быстрее и проще получать онлайн-заказы в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а мест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 развивать свой бизнес и повышать оборот. Проект также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региона и созданию на Сахалине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 Транспорт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стро развивается. В результате расширяются наши возможности по доставке как многотонных грузов в интересах предприятий или отраслей, так и частных посылок. например, товаров из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ов. Популярность такой формы торговли среди жителей нашей области растет. В этой связи важно, что мы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с компанией Ozon. Она планирует созд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проекта повысится скорость доставки товаров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и понизится ее стоимость,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полный цикл обработки заказов - от приемки товаров до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сылок и их передачи в доставку. Площадь комплекса составит до 8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о полу, включая площадь хаба доставки, заказы из которого передаются курьерам в доставку в пункты выдачи заказов. Комплекс сможет хранить свыше 5 миллионов товаров и ежедневно обрабатывать сотни тысяч заказов. Инвестиции Ozon в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еспечение комплекса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составят порядка 3,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Для нас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люд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могли удобно и быстро получать нужные товары. Мы высоко цен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и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подход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ша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регионе помогает сокращать путь заказа до покупателя, обеспечивая товар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мест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оторые смогут развивать бизнес на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и становиться ближе к своим клиентам,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Ozon холдинг» Игорь Зимин.

Число онлайн-заказов Ozon, которые сделал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ыросло почти в 2 раза с начала года, а число постоянных клиентов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олее чем на треть. Половина всех заказов доставляется в малые города и села региона. На одного клиента приходится на 50% больше онлайн-заказов,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Вместе с цифровой платформой продолжают развивать свой бизнес местны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товарооборот которых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высил 6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Они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разместить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на витрине «Сделано на Сахалине» и продвигать свои товары среди 67 миллионов активных клиентов маркетплейса.

Волонтер из Корсакова Максим Анищенко отмечен нагрудным знаком «Горячее сердце» за спасение человека

17-летний волонтер из Корсакова Максим Анищенко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нициативы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участием «Горячее сердце». Неравнодушный юноша был отмечен одноименным нагрудным знаком за спасение человека.

Награду от Фонда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сахалинцу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заслуженной наградой. Вы оказали помощь женщине, потерявшей сознание на улице. Благодаря вашему неравнодушию спасена жизнь чело-

века. Ваш поступок — яркий пример того, что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продолжает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ые традиции России. Больш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родителям и наставникам, которые воспитали вас отзывчивым и мужественным человеком, — обратился к юнош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Максим Анищенко является волонтером Корсак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ий Красный Крест». Неравнодушный поступок парень соверши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имой.

— Выходил из здания и увидел женщину, лежащую на земле в луже крови. Обратился к ней, чтобы узнать, как она себя чувствует, а человек без сознания. Снял шапку, остановил кровотечение подруч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и скорую вызвал, — рассказал Максим Анищенко.

Максим перенес женщину в машину, так как на улице было холодно. Когда пострадавшая пришла в сознание, он успокаивал и поддерживал ее до приезда бригады медиков.

Всеросси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нициатива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участием «Горячее сердце» реализуется с 2013 года Фондом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Фонд вед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фере социаль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политики,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е возрождение,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укрепление 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За год в адрес Оргкомитета инициативы поступило 1052 представления на награждение из 87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и 8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Наградная комиссия отобрала 188 лауреатов. Их истории отражены в Почетной книге «Горячее сердце — 2026». В нее внесено и имя Максима Анищенко.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отделении «Российского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сегодня состоит 40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волонтеров из числа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Ребята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по оказанию первой помощи и никогда не проходят мимо, если случается беда.

— 1 мая наши волонтеры стали свидетелями приступа эпилепсии у девочки 14 лет. Увидели, как ребенок упал, забился в конвульсиях. Ребята не растерялись — они знают, что делать в таких ситуациях. Оказали первую помощь и помогли доставить ребенка в районную больницу,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рсак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ий Красный Крест» Виолетта Дорошенко.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откроют секцию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и для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проверил исполнение поручений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Ревизоры посетили ряд объектов и оценили работу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жителей.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населением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около 40 девочек из села Стародубского мечтают заниматьс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ой. Однако такой секции в районе не был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исправить ситуацию. Теперь помещение для будущих гимнасток готово к приему воспитанниц.

— Занятия начнутся с 1 сентября. Мы провели работу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и получили положительную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родителей, — рассказала первый вице-мэр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Наталья Хиценко.

Ревизоры также проверили новостройки Долинска. В одном из домов ранее не работала вентиляция, из-за чего на стенах появилась плесень. Сейчас проблема устранена. В другом здании во время дождей вода затекала в подъезд. Причиной оказался неправильный вывод труб водостоков. Рабочие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монту. Не обошли стороной и районную больницу. Жители жаловались на нехватку пробирок для сдачи анализов крови.

— Персонал вовремя не получил и не доставил расходные материалы. Сейчас все пробирки имеются в достаточном количестве. Забор крови производится без перебоев, — поясни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Долинской ЦРБ Татьяна Китова.

Жители также просили открыть круглосуточную аптеку. С 1 июня такая точка заработала в Долинске на базе аптеки № 55.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 районе активно идет социальная газификация. Село Сокол — не исключение. Во время первого этапа здесь провели газопроводы к котельным. Во время второго — 22,8 километра сетей для 178 домовладений. Перехода на голубое топливо ждут сотни сахалинцев. Это экологично, а главное — экономично.

— Разницу ощутили существенно. Раньше обогревались электричеством, платили около 30 тысяч в месяц зимой. Сейчас вышло 2600. Экономия в десять раз, — поделился житель села Сокол Александр Куксауз.

Проверили и детскую площадку в селе Сосновка. Старые конструкции не подлежал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Их демонтировали и установили качели.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порекомендовал оснастить площадку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детей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 Этот проект оказывает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С каждым разом мы видим все больше улучшений. Главное — оперативная реакция на обращения жителей и реальное исполнение поручений,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Алена Силачева.

Всего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команда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проверила 14 поручений главы региона. Десять из них выполнены полностью. Четыре находятся в работе на разных стадиях готовности. По итогам поездк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тавят отчет для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바다 건너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 맞아 온라인 간담회 · 정책 포럼 개최

온라인 간담회 통해 동포 민원 해결 현황 공유 및 현장 의견 청취

학술포럼 열고 재외동포 정책의 과제와 미래 방향 논의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6월 5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과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을 맞아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념행사를 서울 서초동 외교타운에서 개최했다.

※ 재외동포청은 기존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2023년 6월 5일 출범
이번 행사는 '바다 건너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의 온라인 실시간 소통과 학계의 정책 제언을 담은 학술포럼으로 진행됐다.

1부 온라인 소통 간담회에서는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재외동포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원 해소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등 재외동포 정책 관련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동포사회 민원과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한국휴대전화 없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간편인증서의 활용처 확대,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확대,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및 1종 운전면허 갱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재외국민 간편인증서의 민간 서비스 활용 확대 추진 상황과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 개선 검토 상황 등을 설명*했다.

* 재외국민 간편인증서 활용처 민간으로 확대 추진, 동포단체 지원금 보조율 50%에서 80%로 상향 추진, 공관을 통한 1종 운전면허 갱신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긍정 검토 추진 중.

김경협 동포청장은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한 1차 민원 및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동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2부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에서는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책학회, 재외한인학회 등 각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외동포 정책의 성찰과 전환'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재외동포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정책 수요를 진단하고,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우리 사회의 수용성 제고, 동포 인재 유치, 동포 네트워크의 미래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구촌 곳곳에서 보내주시는 동포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고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이번 3주년 행사는 동포들의 고언을 듣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겨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기업 해외 판로 넓힌다

전북 기업 102개 대상 일대일 수출 상담...재외동포 경제인 노하우 전해

한상네트워크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대전,강원 등으로 확대 예정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함께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재외동포청은 이달 11일 전주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2026 세계한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코트라 전북지원본부 등 지역 수출지원 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상담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경제인과 전북자치도, 코트라 전북지원본부가 초청한 해외 바이어 등 45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전북 지역 중소기업 102개 업체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현지 시장 정보와 수출 비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참가 기업들은 식품, 소비재, 생활용품,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판로 개척 가능성을 점검한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올해 1월 지자체와 협력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 대전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등 3개 광역지자체를 선

정했다.

이번 전북상담회에 이어 선정된 다른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고, 지역 기업과 동포 경제인 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글로벌 자산"이라며,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K-인시터티브를 세계 각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를 9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제24차 세계한상대회 관련 정보는 '한상넷(<https://hansang.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유족이 자비로 모신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비 국가가 지원해야"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된 후 현지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국내에 봉환한 경우, 국가가 유해 봉환에 발생한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고(故) 임모씨의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한 뒤 행정안전부에 유해 봉환 비용 보전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해,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행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이 추진하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지침 등을 마

련할 것도 제도 개선 의견으로 제시했다.

임씨의 유족은 2013년 자비를 들여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뒤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치했다. 이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유해 봉환 책무를 대신 이행했다며 유해 봉환 실비 보전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업무를 승계한 행안부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간 행안부의 유해 봉환 예산 평균 집행률이 44.3% 수준에 그치는 등 예산상 제약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 방식에만 의존하면 다수의 국외 강제동원 희

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에 민간이 유해 봉환을 추진할 경우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는 등 민간 차원의 유해 봉환을 활성화하는 것이 강제동원조사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보다 먼저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했음에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오랜 기간 방치된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가 정비되고 사할린 등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사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우리말로 깨닫다]

제 머리 못 깎는다

요즘 저는 긍정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 사고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학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생활하면 좋은 결말이 있을 거라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긍정심리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긍정심리학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것은 언어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언어교육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일면 동의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언어교육은 이렇게 사라지게 될까요? 언어를 배우는 일이 무가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저는 과거에서 찾습니다.

새로운 교육 방안처럼 이야기하는 많은 교수법이나 교육철학은 이미 오래전에 실시하였거나 구상하였거나 깊이 통찰하였던 내용입니다. 저는 통찰력의 측면에서는 현대인이 선인들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전을 수없이 읽고, 외우고, 수행하는 속에서 깨달은 사고의 깊이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고를 찾아가면서 현재와 미래의 언어교육에 길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중 한 방법이 속담을 살피는 겁니다.

속담(俗談)은 한국인의 사고를 나타냅니다. '속(俗)'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 누구나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 속담입니다. 풍자성과 교훈성을 주로 담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속담을 잘 살펴보면 긍정심학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속담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속담이 심리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리학이 제 전공은 아니니 깊은 연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듯합니다. 과학적 연구 말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보다 자신감이 지나친 사람이 위험하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도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때 생각해야 하는 속담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입니다. 이 속담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관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어려움은 잘 도와주지만 자신의 일 앞에서는 해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풍자한 말이겠죠.

풍자를 교훈으로 돌리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속담이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충고로 보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때로는 고통이 됩니다.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오히려 절망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남에게는 힘이 되었지만, 나의 일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힘이 되었듯이 남이 내게 힘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의 머리를 깎아주었듯이, 내 머리를 깎아줄 사람이 있음은 행복한 일입니다. 나의 일을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서는입니다. 나를 저만치 떨어져서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리가 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 앞을 가리네요. 자를 때가 되었나 봅니다. 어서 글을 마치고, 머리를 자르러 가야겠습니다. 제 머리를 제가 자를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웃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읽고 웃으셨거나 머리를 자르러 가실 생각을 했다면 다행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Отрадно видеть, что в акции участвуют целыми семьями,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Именно так с раннего возраста, формируются любовь к природе и ответст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родному краю. Это и есть настоящий патриотизм»,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Акция «Вода России» остается одной из крупнейши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волонтерских инициатив страны.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жегодно принимают в ней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омогая приводить в порядок берега рек, озер и морского побережья. В этом году эколог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стартовал 17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уборки берегов реки Рогатки. До конца года в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около 200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очистке прибрежных территорий.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ним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반려동물에 마이크로 칩 삽입 및 무료 이동등록 서비스 제공

'반려동물 질병퇴치 관리소' 국립복지기관이 주택가 마당에서 반려동물 출장진료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로운 방식의 편리함을 '에템'주거단지 아파트에 사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주인들이 가장 먼저 평가할 수 있었다. 이 구역의 주민들은 이제 주택 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다며 전문 수의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사할린주 수의학 및 축산원이 소식을 전했다.

이동진료서비스 시 수의사들은 반려동물들을 검진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국 통합동물등록처에 입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대단히 실제적인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모든 반려동물들에게 개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 반려동물의 주인에 대한 정보와 그와의 연락처는 러시아 전역 국립수의학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만약 목줄이 풀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큰 노력 없이도 마이크로칩의 번호로 찾을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사할린주를 넘어 다른 곳에 있다해도 찾을 수 있다.

사할린 지역에서 반려동물의 공식 등록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 규정은 사할린주 해당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다.

국립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절차와 마이크로칩 삽입은 무료이지만 이 규정을 간과하는 반려동물의 주인에게는 감독기관이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러한 벌금제가 2026년1월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반려동물 소유주의 미등록이 처음 적발될 시 행정적 벌금으로 1500루블리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와 유사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면 벌금형은 증가하여 최대 5천 루블리까지 부과된다.

사할린 지역 수의학서비스는 유즈노сахалинск 주거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이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피하고, 반려동물들의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동진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6월 16일에는 '아랄리야'주택단지에서 수의사들이 반려견 이동등록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접수는 직장인들을 고려해 편한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одят выездную бесплатную регистрацию и чипирование питомце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бюджетные учреждения «Станции по борьбе с болезнями животных» (СББЖ) запустили практику выездных приемов прямо во дворах жилых комплексов.

Первыми оценить удобство нового формата смогли владельцы собак и кошек, проживающие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ЖК «Эдем».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искренне поблагодарили ветеринар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 экономию времени, ведь теперь исполнить требова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можно буквально не выходя из своего

двора.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гентства ветеринарии и племенного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ходе выездного приема ветеринарные врачи не просто проводят осмотр, но и вносят все данные о питомце в единую общероссийскую базу учета животных.

Этот процесс несет огромную практическую пользу для владельцев:

Каждому животному присваива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номер;

Сведения о владельце и его контактах становятся официально доступ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етеринар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Если любимый пес или кот случайно сорвется с поводка и потеряется, найти его по номеру микрочипа не составит никакого труда — даже если беглец окажется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официа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ольше не является добровольной процедурой. Данная норма закреплена профильным Закон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цедуру внесения в базу и чипирование в госклиниках проводят абсолютно бесплатно, однако за игнорирование правил владельцев рублем накажут надзорные органы. С 1 января 2026 года в области начали действовать штрафные санкции:

За первичное выявление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го домашнего животного владельцу грози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до 1 500 рублей.

За повторное аналогичное нарушение сумма финансового наказания существенно возрастает и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до 5 000 рублей.

Региональная ветеринарная служба продолжит практику выездных приемов в спальных район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чтобы все жители успели обезопасить себя от штрафов, а питомцев — от безвозвратной потери.

Следующая выезд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собак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16 июня. Ветеринар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ЖК «Аралия». Прием начнется вечером, в максимально удобное для работающих людей время — с 18:00 до 20:00.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АССРОЧКА

Реклам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5.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